

완도군, '관광객 천만 시대' 준비 박차

지난해 568만 명 완도 찾아 빅데이터 분석 8·9월에 집중 체류형 관광 기반 시설 집중 투자



완도군이 올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목표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이 진행하고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한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향해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568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완도군을 찾았는데, 군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완도군에 따르면 KT, 고려대 디지털혁신연구소 등 관산학 협력으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빅 데이터 기반 관광 분석 사업'을 시행했다.

빅 데이터 분석 결과 '22년 말 기준 완도군을 방문한 관광객(외지인과 외국인 포함)은 약 568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고 5월과 9, 10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는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선호하는 트렌드와 그동안 군에서 추진해 온 해양치유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완도 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 인기, 접근성 개선 등이 맞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관광객 재방문율도 매년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관광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 비중은 MZ 세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관광 소비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 소비 규모는 2022년 약 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식음료, 소품 소매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숙박과 레저, 대중교통 부문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 소비자 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완도군의 인근 도시인 목포시와 광주광역시에서 당일 여행 관광객이 많았으며, 수도권 관광객의 방문 비중은 해마다 증가했다.

군은 경기도 등 대도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축제의 경우, 장보고수산물축제는 관내 40, 50대 중장년층 소비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

고,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수도권 등 원거리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 관광 빅 데이터는 지역 축제 개선과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MZ 세대를 위한 숙박시설 구축,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확대, SNS 관광 마케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제주도가 가장 가까운 항구, 완도항'과 같은 국내 유일의 관광 브랜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빅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복지, 주택,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중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함평군선관위, 산림조합 콕 찍어 금품 자진신고 현수막 내건 이유는?

지역민들 "선거에 문제 있다" 공금 선관위 "범죄 연관 확인 못해줘"



"함평군선관위 선거와 관련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자진신고 하세요."

함평 지역에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특정 조합을 언급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를 권유하는 현수막(사진)이 곳곳에 내걸려, 이 '특별한 조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함평군산림조합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조합원에 대한 자진 신고'를 안내하는 현수막 총 18매를 게시했다.

현수막이 내걸리자 조합장 선거 유권자는 물론 지역민들은 "산림조합 선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뭘 신고하라는 건지", "자진해 신고하면 없던 일로 해주는 거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의 한 유권자는 "특정 조합을 지칭한 현수막을 보고 당황스러웠다"며 "자진신고를 권유한다고는 하나 특정 조합이 언급된 만큼 조합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유리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이번 현수막과 범죄 사실 관계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으며, 상급 기관인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내용은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함평산림조합 선거 관련 '선거법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74조'에 따라 선관위에 자신의 해당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 시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되고 제76조의거 최고 3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또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제68조에 따라 금품의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상한액 3000만원)에 대한 안내 등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는 함평 지역에서 함평농협, 나비골농협, 월야농협, 천지농협, 손불농협, 함평축산농협, 함평군산림조합 등 모두 7개 조합이 조합장 선출을 실시한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1~22일이고 선거운동은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함평=현수영 기자 hsy@

순천만정원박람회조직위, 스카우트전남연맹과 성공 개최 협약

청소년 문화 체험 등 활용 협력

한국스카우트전남연맹이 오는 4월 개막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에 나선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와 한국스카우트전남연맹은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및 청소년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잰버리 대회 등 국제대회와 연계 박람회장 활용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시 박람회장 활용 및 홍보지원 ▲청소년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배 한국스카우트 전남연맹장은 "2023년 잰버리대회로 순천에 방문하는 세계 각국 선수단과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고, 더 나아가 자·덕·체를 고루 갖춘 멋진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관규 이사장은 "2023정원박람회는 웰니스와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시대에 정원을 통해 미래도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도 큰 비전을 줄 수 있는 박람회"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노관규(가운데 왼쪽) 순천시장과 강원배(가운데 오른쪽) 한국스카우트 전남연맹장, 운동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박정수 전남연맹 중앙이사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정원박람회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재해예방시설인 저류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광활한 정원으로 바뀌면 '오천그린광장'

▲차가 달린 아스팔트 도로를 푸른 잔디길로 탈바꿈한 '그린 아일랜드' ▲정원에서 하룻밤, 힐링과 치유의 '가든스테이' ▲맨발로 건강을 챙기는 '어싱길' 등 다채로운 웰니스 콘텐츠를 선보인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해남군청 드론 동아리 '비상' 구조활동 맹활약

2021년 창단 30여명 참여

해남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드론 동아리 '비상(비상)'이 구조활동 등 각종 현장업무에서 맹활약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21년 창단한 '비상'은 군청 소속 공무원 3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취미 활동은 물론 위급한 현장 업무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매주 주말을 이용해 드론 교육을 받아오면서 회원들의 드론 운용 능력도 향상돼 각종 관련 업무 활용과 더불어 재난 상황 활용 및 실종자 수색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현상면과 송지면 실종자 수색 활동에 투입돼 두차례에 걸쳐 실종인을 구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현상면 해남 드론교육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처음으로 실시한 실기시험에서 의회사무과 이대주 과장과 건설도시과 김태범 팀장이 합격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콕터 1종) 자격증을 취득해 관련 자격증 취득 회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드론 동아리 '비상'은 꿈꾸다 드론교육원(대표 신재권), 가운 항공(대표 김도일), 해남 드론 전문교육원(대표 박종삼)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계



해남군청 드론 동아리 '비상' 회원들이 드론을 앞에 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적인 드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민·관·군·경 9개 기관과 드론 협업플랫폼 구축을 위한 드론운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정호 회장은 "드론의 활용은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뿐만 아니라 항공 영상, 사진 촬영, 기상 정보 수집, 실종자 수색 등 안전관리, 건축·토목공사 시공 전·후 비하, 군정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드론 운용을 통해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